

교육인적자원부 시설환경개선과에서 ESCO 업무 맡고 있는 이규진 주사(왼쪽)와 최석천 사무관(오른쪽).

**지난** 해부터 나타났던 ESCO사업의 눈에 띄는 특색 중 하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조명분야의 입찰공고가 많다는 점이다.

작년 한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전국 학교에서 실시한 ESCO사업은 총 164건. 이는 전체 519건 가운데 30%를 웃도는 동시에 산업체, 건물, 아파트 등 모든 분야중 가장 많은 실적이기도 하다.

올 6월까지 상반기에만도 전체 280건의 ESCO사업중 절반에 가까운 117건이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학교내 ESCO사업실적이 월등히 높은 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도개선사업 5개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사의 상당수가 ESCO사업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시설 ESCO사업, 전분야중 최다실적 예산부담 덜어주고 환경개선효과 탁월**

교육인적자원부 시설환경개선과에서 ESCO 업무를 맡고 있는 이규진 주사와 최석천 사무관은 "ESCO를 활용한 조도



“약 30% 정도의 학교가 아직 조도미달상태입니다. 교육부 예산만으로는 역부족인 형편인데 사후관리가 보장되는 ESCO사업을 이들 집행기관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조도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사업은 시행기관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만족할 만한 개선효과를 볼 수 있어 이득”이라며 “조도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 ESCO는 든든한 동반자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시설 ESCO사업은 에너지비용절감 이외에도 교실밝기가 50~100% 향상되어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해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조도개선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조도기준은 300LUX, 지난 97년도의 150LUX에서 100% 상향조정된 것이지만 이는 KS기준이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편이라고 한다. 상, 중, 하로 나뉘는 KS 조도기준에서 지금은 '하'에 해당되는 것.

이규진 주사는 “아직까지는 최하위 설정이지만 여기에만도 1조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자금부담을 감안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450LUX, 600LUX까지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SCO 적용범위의 확대 가능성도 높아 교육시설 ESCO사업 '순항'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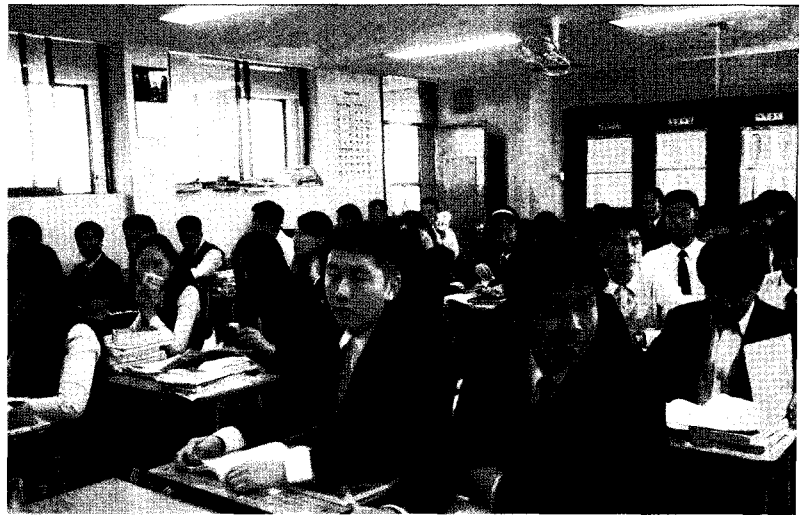
교육인적자원부의 ESCO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됐던 시기는 지난해. 이규진 주사는 그중에서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최고 모범사례로 꼽았다.

부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개의 지역단위로 학교를 묶어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학교에서 에너지절감액 및 학교운영비로 5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ESCO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교실조도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냉난방 시설개선까지 ESCO사업을 통해 실시하는 등 교육시설 적용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넓혀주었다.

지난해 가장 열심히 추진했던 부산 교육청에 이어 올해는 단연 경기도 교육청이 ESCO사업추진에 선전하고 있다.

이규진 주사는 “ESCO의 제도적 특성상 5년이라는 자금상환기간이 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



● ESCO 조명교체사업을 통해 교실밝기가 50~100% 향상되어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해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학교장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침을 열심히 따라주고 노력해 준 일선 집행기관 실무자들에게 고마울 뿐”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약 30% 정도의 학교가 아직 조도미달상태입니다. 교육부 예산만으로는 역부족인 형편인데 사후관리가 보장되는 ESCO 사업을 이들 집행기관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조도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CO사업 덕분에 조도개선사업의 진척도가 빠르고 막대한 예산소요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ESCO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지금과 같이 톡톡히 해낸다면 교육시설 ESCO사업의 '순항(巡航)'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